

이슈페이퍼 2018-11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유해미

1. 문제 제기
2.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 현황
3.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수요
4.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 요약 |

- 지난 10여년간 주력해 온 자녀돌봄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자녀양육 단계별 지원이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고, 해당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자녀돌봄 지원은 영유아기의 보육교육비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돌봄지원 수요는 학령기 전반에 걸쳐 있고, 특히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분야는 전 양육 시기에 걸쳐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 관련 돌봄서비스 지원은 전(全)계층 지원 확대에 대한 수요자의 동의 비율이 80%를 육박하므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함.
-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신생아기는 산모 도우미 지원대상의 확대, 영유아기는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초등학령기는 방과후 돌봄의 접근성 제고, 학령기는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1 문제 제기

- 정부의 저출산 대응은 생애주기별로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때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는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응에서 가장 주력해 온 자녀돌봄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각 양육 단계별로 수요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진단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주요 정책들이 자녀양육 단계별로 수요자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간과된 돌봄지원 욕구는 없는지를 규명해야 함.

* 본 원고는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이를 위해 자녀양육의 시기(출산 및 신생아기,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별로 돌봄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돌봄지원의 내용 및 대상이 적합한지를 분석함¹⁾.
 - 수요자의 돌봄지원 요구 수준에 맞는 지원대상이 포함되고, 해당 욕구 수준에 맞는 소득기준 등 지원대상 기준이 설정되었는지를 규명함.
 - 저출산 대응 노력은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을 포괄하여 다룸.

2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 현황

- 중앙정부의 출산 및 신생아기부터 중고등학령기에 이르는 돌봄지원 사업과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 분야 출산 및 육아지원 사업 현황을 종합하여 정합성 측면에서 주요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중앙정부의 자녀돌봄 지원사업 현황

- 2017년 기준으로 자녀 돌봄지원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사업수가 가장 많고, 재정정부 투자 비중도 가장 높음(표 1 참조).
 - 영유아기에는 아동 관련 수당, 보육교육서비스, 가정 내 양육지원(시간제보육 등), 휴가휴직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 및 관련 기업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과,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과 영양플러스 사업,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부모 상담, 언어발달 및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됨.

1) 이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표 1〉 자녀양육 단계별 중앙정부 주요사업(2017)

단위: 백만 원, %

구분 사업명	양육 시기별				2017년 예산	비중
	0~2세	3~5세	6~12세	13~16세		
임신·출산 진료비					1,200	0.02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2,400	0.20
신생아·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38,800	0.64
고위험군 산모신생아지원					13,900	0.23
가정양육수당(농어촌, 장애아동)					1,224,200	20.18
시간제보육					8,800	0.1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15,085	0.25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3,000	0.38
0~5세 보육료 지원					3,129,200	51.58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000	0.0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182	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중앙)					1,220	0.02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44,200	4.03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92,500	1.5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54,572	0.9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8세)	147,200	2.4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9세~)		18,026	0.30
초등돌봄교실					588,600	9.70
방과후 학교					130,500	2.15
방과후 수강권				(~18세)	194,700	3.21
교육급여					127,576	2.10
합계					6,066,861	100.0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99에서 재인용
보건복지부(2016) ; 교육부(2016) ; 여성가족부(2017) ; 교육부 홈페이지.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양육 단계별로 보편적 지원은 가정양육수당과 0~5세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등에 한정됨.
 -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부문에서 세부 사업의 적용기준은 중위소득 40%에서 80%까지 상이함.

〈표 2〉 자녀돌봄 분야 주요사업의 지원대상 소득기준(2017)

양육 단계	구분		소득기준	
	지원내용	선별	보편	
산모 및 신생아	임신·출산 진료비 일부 지원		○	
	아동입원비 일부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신생아·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중위소득 80% 이하		
0~2세아	가정양육수당(농어촌, 장애아동)		○	
	시간제보육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60% 이하(가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		
0~5세아	0~5세 보육료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중위소득 4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건강보험료 하위 30%		
	영양플러스 사업	중위소득 80%		
0~12세아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60% 이하(가형)		
	아동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6~12세아	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가구 우선		
	방과후 학교			
9~15세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6~17세아	방과후 수강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교급식		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0~17세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02에서 재인용.

나. 지방정부의 자녀돌봄 지원 사업 현황²⁾

- 2016년 기준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공통사업의 예산 총액은 8조 7,148억 원이며, 그 중 지방비 예산은 3조 8,872억 원으로 해당 투자는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음(표 3 참조).
- 범주별로는 보육·교육서비스 지원(누리과정 지원금 포함)이 5조 6,66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0%를 차지하며, 아동 관련 수당 지원이 1조 6,604억 원으로 19.1%로 나타남.
-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의 경우는 방과후 돌봄지원이 주를 이루며, 해당 예산은 4,561억 원(5.2%)으로 나타남.

〈표 3〉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의 공통사업 예산(2016)

단위: 개, 억 원, %

생애주기	지원 분야	사업수	돌봄 분야 예산 총액		지방비 예산	
			예산 총액	분야별 비중	지방비 예산	분야별 비중
	전체	398	87,148	100.0	38,872	100.0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1	778	0.9	422	1.1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6	250	0.3	142	0.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50	682	0.8	260	0.7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9	75	0.1	32	0.1
	기타	8	156	0.2	78	0.2
영유아기 자녀 : 0~5세아	아동관련 수당 지원	32	16,604	19.1	5,670	14.6
	보육·교육서비스	75	56,664	65.0	25,984	66.8
	돌봄시간 지원	11	206	0.2	30	0.1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30	3,127	3.6	1,789	4.6
	기타	65	4,026	4.6	1,097	2.8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 : 6~11세아	방과후 돌봄	36	4,561	5.2	3,361	8.6
	기타: 취약계층 지원	4	18	0.0	5	0.0
중고등 학령기 자녀 : 12~17세아	교육비 지원	1	1	0.0	0	0.0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15에서 재인용.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2) 이하 자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한 결과임.

- 2016년 기준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총 1조 8,189억 원이며, 이들 중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지원 예산이 1조 916억 원(6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영유아기 돌봄지원 분야의 자체사업 비중은 공통사업(65.0%)에 비해 적은 반면,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예산은 9.9%로 늘어남.
 -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사업 중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용품 등의 지원에 8.2%가 투자됨.

〈표 4〉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 예산(2016)

단위: 개, 억 원, %

생애주기	지원 분야	사업수	돌봄 분야 자체사업 예산	
			예산 총액	분야별 비중
	전체	908	18,189	100.0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1	21	0.1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0	33	0.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86	253	1.4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	0	0.0
	기타(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등)	241	1,500	8.2
	소계	511	1,807	9.9
영유아기 자녀 : 0~5세아	아동관련 수당 지원	68	417	2.3
	세제지원	2	0	0.0
	보육교육서비스	40	10,916	60.0
	돌봄시간 지원	58	76	0.4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35	50	0.3
	기타	88	411	2.3
	소계	291	11,870	65.3
	초등학령기 자녀 : 6~11세아	현금/현물 지원	18	2,164
방과후 돌봄		37	1,684	9.3
기타 : 취약계층 지원		31	242	1.3
소계		86	4,090	22.5
중고등 학령기 자녀 : 12~17세아	교육비 지원	16	421	2.3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20에서 재인용.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3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수요

- 예비부모 및 자녀를 둔 가구의 부모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돌봄 지원 정책 및 제도의 이용 경험 및 만족도와 도움 정도, 그리고 각 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의 필요도와 추가 지원요구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음.

가. 자녀돌봄 지원 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인식

- 자녀양육 단계별로 돌봄지원 정책 및 제도의 이용 경험과 이용자에 한하여 도움 정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토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출산 및 신생아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유경험율은 45.9%로 약 절반 수준임.
 -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은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이고 평균 4.12점으로 조사됨.

〈표 5〉 출산·신생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계(수)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5.9	(900)	0.7	4.8	23.5	38.5	32.4	1000(413)	3.97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13.6	(900)	0.0	5.7	24.6	41.8	27.9	1000(122)	3.92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10.9	(900)	3.1	10.2	17.3	40.8	28.6	1000(98)	3.82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12.9	(900)	0.9	5.2	17.2	34.5	42.2	1000(116)	4.12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4.3	(900)	2.6	5.1	30.8	30.8	30.8	1000(39)	3.8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적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52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영유아기 자녀

-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과 자녀세액공제가 각각 68.7%와 62.9%로 높은 수혜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52.6%, 영유아 건강검진 55.3%, 0~5세 보육료 지원 47.6% 순임
- 제도 및 사업별로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은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으로 '매우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 평균 4.37점으로 조사됨.

〈표 6〉 영유아기 자녀돌봄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계(수)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8	(900)	0.0	1.9	28.8	46.2	23.1	100(52)	3.90
시간제보육	19.6	(900)	1.1	2.8	22.7	37.5	35.8	100(176)	4.04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8.2	(900)	1.4	2.7	20.3	41.9	33.8	100(74)	4.0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52.6	(900)	0.4	1.9	12.9	34.2	50.5	100(473)	4.33
가정양육수당 지원	47.6	(900)	0.2	1.6	12.9	38.6	46.7	100(428)	4.30
0~5세 보육료 지원	12.9	(900)	2.6	2.6	13.8	38.8	42.2	100(116)	4.16
3~5세 누리과정 지원	7.3	(900)	3.0	12.1	31.8	37.9	15.2	100(66)	3.50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3.4	(900)	0.0	12.9	25.8	48.4	12.9	100(31)	3.61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7.9	(900)	1.4	4.2	23.9	39.4	31.0	100(71)	3.9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37.4	(900)	0.0	5.0	19.9	31.2	43.9	100(337)	4.14
드림스타트 사업	3.6	(900)	0.0	3.1	21.9	50.0	25.0	100(32)	3.97
영양플러스 사업	8.1	(900)	1.4	5.5	28.8	28.8	35.6	100(73)	3.9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55.3	(900)	1.0	3.0	18.1	36.5	41.4	100(498)	4.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8	(900)	1.4	4.3	24.3	42.9	27.1	100(70)	3.90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68.7	(900)	0.0	2.3	9.4	37.5	50.8	100(618)	4.37
자녀세액공제	62.9	(900)	0.4	3.7	15.0	38.3	42.6	100(566)	4.19
교육비 세액공제	51.2	(900)	0.4	4.1	16.7	37.5	41.2	100(461)	4.15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적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54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학령기 자녀

- 방과후 학교의 이용율이 57.5%로 가장 높고 급식비 지원이 35.7%로 조사됨.
-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은 급식비 지원과 학교 유유급식 지원이 각각 평균 4.36점, 4.35점이며, 그 다음으로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율이 각각 42.1%와 40.0%로 조사됨.

〈표 7〉 학령기 자녀돌봄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계(수)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초등돌봄교실	20.2	(600)	1.7	1.7	15.7	38.8	42.1	100.0(121)	4.18
방과후 학교	57.5	(600)	1.2	2.9	21.7	42.6	31.6	100.0(345)	4.01
방과후 수강권 지원	9.8	(600)	3.4	3.4	11.9	45.8	35.6	100.0(59)	4.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7.0	(600)	0.0	7.1	16.7	52.4	23.8	100.0(42)	3.93
지역아동센터 운영	7.5	(600)	0.0	6.7	11.1	42.2	40.0	100.0(45)	4.16
급식비 지원	35.7	(600)	0.0	1.9	10.7	37.4	50.0	100.0(214)	4.36
학교 유유급식 지원	28.0	(600)	0.0	1.8	10.7	38.1	49.4	100.0(168)	4.35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59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조사’ 결과임.

□ 근로자 대상 기업의 돌봄지원 제도

- 근로자 대상 기업의 돌봄지원 제도의 이용율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출산전 후휴가 23.3%, 배우자 출산휴가 22.7%, 육아휴직제도 18.3% 순으로 조사됨.
- 이들 제도가 매우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육아휴직 65.5%, 출산전후휴가 5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8.7% 순으로 조사됨.

〈표 8〉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계(수)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출산전후휴가제도	23.3	(900)	0.0	3.3	9.5	33.3	53.8	1000(210)	4.38
배우자 출산휴가	22.7	(900)	2.5	4.4	24.5	25.5	43.1	1000(204)	4.02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4.2	(900)	0.0	2.6	18.4	31.6	47.4	1000(38)	4.24
육아휴직제도	18.3	(900)	0.0	0.0	11.5	23.0	65.5	1000(165)	4.54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1.8	(900)	0.0	6.3	25.0	37.5	31.3	1000(16)	3.94
가족돌봄 휴직제도	2.4	(900)	0.0	0.0	31.8	40.9	27.3	1000(22)	3.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3	(900)	0.0	0.0	23.1	28.2	48.7	1000(39)	4.26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2.6	(900)	0.0	0.0	34.8	30.4	34.8	1000(23)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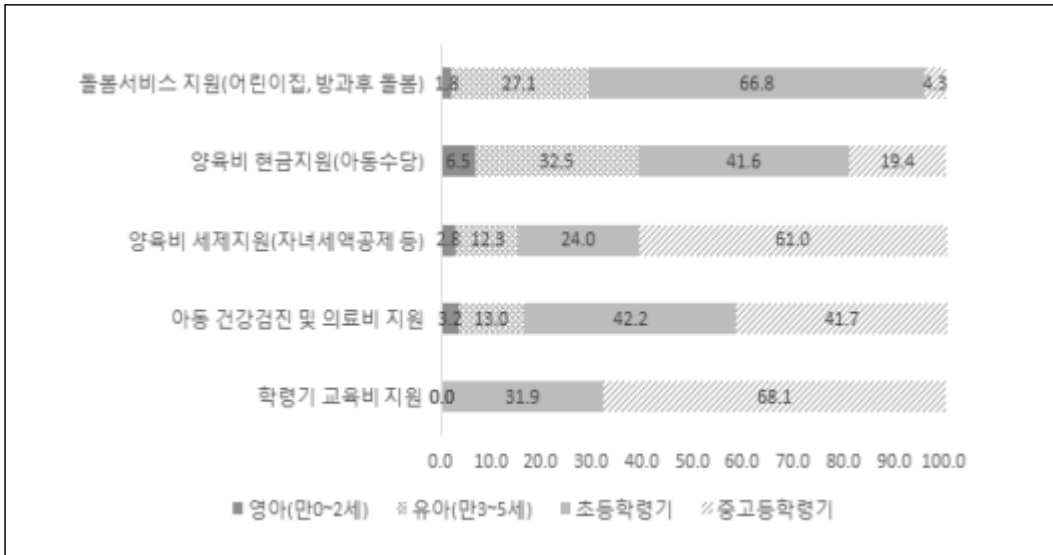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61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나. 자녀돌봄 지원 요구

- 주요 돌봄지원 정책 및 제도별로 양육단계에 따라 필요한 시기는 돌봄서비스와 양육비 현금지원은 초등학교학령기, 양육비 세제지원과 교육비 지원은 학령기 전반에 걸쳐 높은 수요를 보임.
 - 각 부문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돌봄서비스는 초등학교학령기 66.8%, 양육비 현금지원은 초등학교학령기 41.6%, 양육비 세제지원과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교학령기에 각각 61.0%와 68.1%로 가장 높고,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초등학교학령기 42.2%, 중고등학교학령기 41.7%로 유사한 응답율을 나타냄.

단위: %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64에서 재인용한 그림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1] 양육 단계별 자녀돌봄 지원의 필요도

- **현행 중앙정부의 세부 지원별로 출산 및 양육 시의 필요도를 7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평균 6.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세제지원 6.1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 6.12점,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히 6.06점,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6.05점 순임.

〈표 9〉 출산·양육 시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①	②	③	보통			매우 필요함 ⑦	계(수)	평균 (7점)
				④	⑤	⑥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0.2	0.6	1.5	9.7	17.0	20.7	50.4	100.0(1,200)	6.06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0.3	0.7	2.3	11.4	17.6	22.9	44.9	100.0(1,200)	5.94
출산용품 지원	0.9	1.2	3.6	18.1	21.4	20.7	34.2	100.0(1,200)	5.5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0.8	1.1	3.6	14.9	21.6	21.8	36.3	100.0(1,200)	5.6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	1.0	2.0	10.9	21.5	28.0	35.6	100.0(1,200)	5.77
일시돌봄(시간제보육) 지원	0.3	0.8	2.7	12.6	22.8	24.8	36.1	100.0(1,200)	5.75
양육비 현금지원	0.8	1.1	2.8	10.8	14.8	22.0	47.9	100.0(1,200)	5.95
양육비 세제지원	0.0	0.3	1.7	7.9	13.8	23.5	52.9	100.0(1,200)	6.17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0.1	0.5	0.8	6.8	12.3	23.8	55.8	100.0(1,200)	6.25
영유아 보육료 지원	0.5	0.8	1.5	9.0	15.2	24.0	49.1	100.0(1,200)	6.06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0.3	0.6	1.1	9.3	16.5	25.5	46.8	100.0(1,200)	6.05
학령기 교육비 지원	0.2	0.8	0.9	8.3	14.8	24.8	50.3	100.0(1,200)	6.1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 '매우 필요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적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69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주로 출산 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신생아 의료비 지원이 평균 5.94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임.
 - 그 다음으로 출산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수당 42.3%, 산후조리원 지원 36.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9.6% 순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주로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영유아 대상무로 독감 예방이 평균 6.04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임.

〈표 10〉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출산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①	②	③	보통			매우 도움됨 ⑦	계(수)	평균 (7점)
				④	⑤	⑥			
출산지원금(일시금)	3.0	2.2	3.8	15.8	19.3	22.5	33.5	100.0(1,200)	5.48
출산기념품(출산용품) 지원	6.0	6.3	6.5	24.7	19.4	14.8	22.3	100.0(1,200)	4.79
아동수당(매월 지급)	1.3	1.8	2.7	13.8	16.3	22.0	42.3	100.0(1,200)	5.77
산후조리원 지원	2.4	2.5	2.7	14.9	20.6	20.2	36.8	100.0(1,200)	5.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4	2.3	4.2	16.9	23.4	21.3	29.6	100.0(1,200)	5.39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3.3	4.0	6.3	21.4	22.1	17.5	25.4	100.0(1,200)	5.09
유축기 대여	3.9	4.2	6.9	24.8	19.7	16.6	24.0	100.0(1,200)	4.98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	1.0	1.2	2.7	8.5	17.5	23.4	45.8	100.0(1,200)	5.94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적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78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11〉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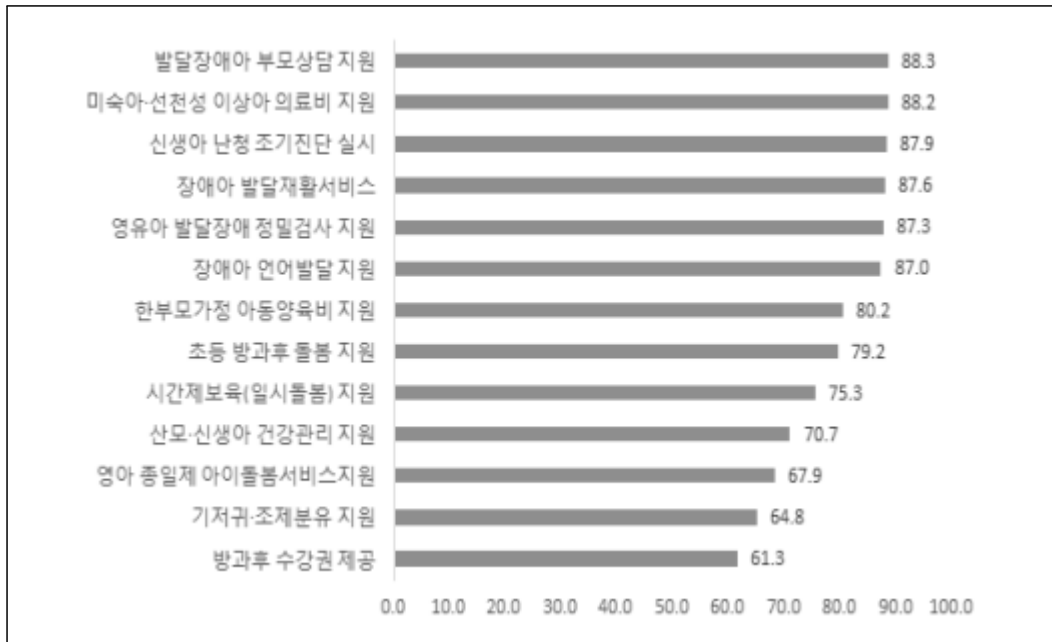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①	②	③	보통			매우 도움됨 ⑦	계(수)	평균 (7점)
				④	⑤	⑥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0.8	1.6	3.3	14.7	25.3	21.8	32.7	100.0(1,200)	5.58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0.5	0.8	1.8	11.6	20.3	24.3	40.6	100.0(1,200)	5.86
맞벌이가구 가사관리사 파견	1.0	2.3	2.6	15.7	19.7	22.1	36.8	100.0(1,200)	5.64
영유아 무료 독감 예방접종	0.1	0.8	1.9	9.0	16.6	24.3	47.3	100.0(1,200)	6.04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1.3	3.2	4.9	23.3	22.0	20.8	24.5	100.0(1,200)	5.22
장난감 대여	1.2	3.2	4.8	24.0	22.3	20.7	24.0	100.0(1,200)	5.21
영유아 학습비 지원	1.0	1.7	3.8	14.4	22.5	25.0	31.7	100.0(1,200)	5.57
복스타트	0.9	2.3	3.7	18.8	25.6	22.4	26.3	100.0(1,200)	5.39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0.6	1.3	3.1	15.7	20.2	26.0	33.2	100.0(1,200)	5.64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1.0	2.2	4.3	18.9	23.3	22.0	28.3	100.0(1,200)	5.40
아동 등하원(교) 서비스 제공	1.2	1.1	2.9	15.3	21.6	23.4	34.6	100.0(1,200)	5.64
다자녀 진료비 감면:: 셋째 자녀	1.3	1.8	3.0	15.3	19.7	23.4	35.5	100.0(1,200)	5.6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적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85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 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40.6%(5.86점), 맞벌이 가구 가사관리사 파견 36.8%(5.64점)상해보험료 등 신생아 안심 보육료 지원 32.7%(5.58점) 순임(표 11 참조).
-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계층에 지원하나, 향후 전(全)계층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장애아 관련 지원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방과후 수강권 제공에는 61.3%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임.

단위: %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90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 (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2] 전(全)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_부모

4 ▶ 향후 과제

가. 기본 방향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은 각 양육단계별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하고, 주요 돌봄지원 분야별로 그 적용시기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돌봄지원의 범위는 출산 및 신생아기,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로 구분하여 세분화하고, 각 시기별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그림 3]과 같이 지원내용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구분	자녀양육 단계별			
	영아	유아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주요 돌봄지원 분야				
돌봄서비스 지원	→			
양육비 현금지원	→		→	
양육비 세제지원	→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			→
학령기 교육비 지원	→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24에서 재인용함.

[그림 3] 자녀돌봄 지원의 양육단계별 포괄범위

- 지원내용 측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위주에서 현금지원과 이외 서비스 부문으로 다각화해야 함.
 - 돌봄지원 분야의 서비스 수요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외에도 출산 및 신생아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서비스, 학령기 자녀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매우 다양함.
- 돌봄지원의 수준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사업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함.
 - 전(全) 계층 확대에의 동의 비율은 장애관련 돌봄지원 전반과 미숙아와 선천적 이상아 의료지원에서 높게 나타남.

나. 자녀양육 단계별 개선과제

□ 출산·신생아기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지원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나, 보편적 지원에의 동의 비율이 88.2%이므로 보편적 지원을 추구함.
-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에 그치고 있으나, 보편적 지원 확대에의 동의 비율이 87.9%이므로 지원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할만 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에 포함된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확대,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자동화이용향 방사검사 및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치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함(대한민국정부, 2016: 70).
-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은 높은 수요를 나타내므로, 서비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80%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19년까지 확대하며, 지원대상을 기존 산후돌봄에 더하여 임신부터 만 2세 방문형 건강관리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함(국정자문위원회, 2017: 154).

□ 영유아기 자녀

- 영유아기는 다양한 돌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지원 분야는 보편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수준이 이에 못 미치므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 지원되나, 보편적 지원에의 동의 비율이 75.3%로 높게 나타나므로 지원대상을 확대함.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는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되나, 전(全) 계층 확대에의 동의 비율이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할만함.
-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과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지원되는데, 이들 대상의 확대가 요구됨.

□ 학령기 자녀

-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은 현재 영유아기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 수요가 중고등학교령기까지 존재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과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아동재활병원 확충 등 학령기 자녀의 의료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국정자문위원회, 2017: 154).
- 초등학령기 자녀의 방과후 돌봄 수요는 높게 나타나므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즉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부처 간, 그리고 지자체 및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함.
- 고등학령기 이후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되므로, 이들 지원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해당 시기의 지원으로는 교육개혁이 제시되며, 이때 주요내용은 공교육 만족도 제고와 역량 강화, 교육체계 개선 등이 주를 이루는 반면, 교육비 지원 확대 계획은 부재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므로(국정자문위원회, 2017: 82), 해당 시기의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교육부(2016). 보도자료: 2017년 교육부 예산안 발표(2016. 8. 30).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6).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웹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검색일자 2017년 6월 1일)